

「제40회 한일경제인회의」 5월에 일본 치바에서 개최

한일 기술경쟁력강화와 경제제휴 · 한일간 균형있는 무역확대방안을 논의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던 양국 간의 경제교류를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해 나가고자 설치한 『한일경제인회의』가 1969년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올해 제40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검색되어 있었던 한일관계가 새정부 출범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층 밝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금번 한일 양국 재계 인사의 회합은 양국이 더욱 성숙되고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굳건히 다져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무역에 의존하고 자원이 부족한 양국 으로서는 국제경쟁력 있는 기술개발력 강화와 경제제휴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기술 경쟁력 강화와 경제제휴’, ‘한일간 균형 있는 무역확대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



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양국의 협력방안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간 경제인 모임으로서는 최대 규모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양국 정상들의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외교노선에 부응하여 한일 간의 새로운 경제협력 아젠다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한편 금번 회의는 40회를 기념하여 양국 정상의 축하메시지를 비롯하여 공로자 시상, 이회법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니시무로 타이쵸(西室

泰三) 일본경단련 평의원회 의장(도시바 상담역)의 기념강연, 양국 경제인 친선교류활동 등 다채로운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양국 경제인간의 대화의 장으로서 지난 40년간 우호증진과 협력방안을 논의해 온 『한일경제인회의』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차대하며, 본 회의가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풀어나가는 역할을 다해 보다 효과적이며 의미 있는 회의가 되도록 영향력 있는 기업인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일 자 : 2008년 5월 15일(목) ~ 5월 17일(토)
- 장 소 : 일본 치바현 우라야스시 Sheraton Grande Tokyo Bay Hotel
- 테 마 : 『한일 기술경쟁력강화와 경제제휴』
『한일간 균형있는 무역확대방안』
- 규 모 : 한일 양국 경제계 대표 300여명
(단장 : 조석래(趙錫來) 회장(전경련·효성 회장))
- 일 정 : 5월 14일(수) 주요기관예방(한국측 단장단)
5월 15일(목) 개회식, 기념강연, 경과보고, 공동주최 리셉션
5월 16일(금) 제1·2세션, 폐회식, 공동기자회견
5월 17일(토) 옵션프로그램(친선교류활동)

※ 참가신청 문의 : 홍소영 사원 (Tel. 02-3014-9888), 심규진 과장 (Tel. 02-3014-9877)



조석래 회장 ‘한일경제협회 제10대 회장’으로 재선임

제27회 정기총회 & 회장단회의(이사회) 개최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회장 : 조석래(趙錫來) (주)효성·전경련 회장)의 제27회 정기총회가 2월 26(화) 오전 11시에 서울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7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조석래 회장이 한일경제협회 제10대 회장으로 재선임되었다. 조석래 회장은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일본 후쿠다 총리의 아시아 중시 외교로 인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밝은 무드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며,

“한일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활성화하여 우리 경제가 성장·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기가 만료된 김윤(金鈞) 부회장(삼양사 회장), 류진(柳津) 부회장(풍산 회장), 박삼구(朴三求) 부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서민석(徐敏錫) 부회장(동일방직 회장), 신동빈(辛東彬) 부회장(롯데그룹 부회장), 조양호(趙亮鎬) 부회장(대한항공 회장), 이길현(李吉鉉) 감사(경원 회장)가 재선임되었다.



또한 협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부회장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하는 상임이사에 김정수(金正守) 제이에스개발 회장, 문규영(文奎榮) 아주산업 회장, 황호균(黃昊均) 더페이스샵코리아 부회장을 선임하였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지난 2월 15일(금) 오전 11시30분에 서울 롯데호텔 36층 칼튼룸에서 2008년도 회장단회의(이사회)를 개최하여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심의를 한 바 있다. 

♣ 한일경제협회 신임 상임이사 Profile ♣



金正守
KIM Jung Soo

(株)JS開發
會長

1951년생
1973 연세대 계산통계학과 졸업
1979 삼성물산(주) 근무
1981 우정상사(주) 대표이사 사장
1984 (주)제이에스 대표이사 회장
1998 한양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2001 제주테디베어뮤지엄 회장
2003 (주)제이에스개발 회장
2003 연세대 총동문회 상임 부회장
2007 연세대 상경대학 동창회장
2007 연경 장학회 이사장



文奎榮
MOON Kyu Young

亞洲産業(株)
會長

1951년생
1977 고려대 농대 졸업
1978 대우 런던지점 주재원
1980 아주산업 자재부
1983 아주파이프공업 대표이사
1984 아주산업 대표이사
1985 시멘트가공업협동조합 이사
1993 아주산업 부회장
2000 한국디지털경영인협회 회장
2002 한중경영인협회 공동 회장
2004 아주산업 회장



黃昊均
HWANG Ho Kyo

(株)The Faceshop
Korea 副會長

1947년생
1969 연세대 상경대 경영학과 졸업
1969 제일제당 입사
1975 중앙일보 개발본부 과장
1978 제일제당 신규사업전담 과장
1981 제일제당 동경 과장
1985 제일제당 이사
1988 제일제당 상무이사
1997 삼성물산 건설부문 전무이사
1999 한일생명 대표이사 사장
2005 더페이스샵코리아 부회장

제10회 한일 고교생교류캠프(경제체험 캠프) 개최

2008년 2월 10일~14일까지 일산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우리 협회는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한일 청소년교류 사업'으로서 한일 관계의 차세대를 짚어질 청소년들의 교류 확대를 위해 보다 젊은 세대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자 2004년 1월부터 『한일 고교생교류캠프(경제체험 캠프)』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제10회 캠프는, 2월 10일(일)부터 14일(목)까지 4박5일간 한국측에서 20개교 39명, 일본측에서 17개교 46명, 합계 37개교 85명의 고등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근교의 일산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총 10회 339개교 919명 참가)



이번 『한일 고교생교류캠프』에서는 한일 양국의 고교생이 4박5일 동안 합숙하면서 각 10~11명씩 한일 혼성 8개 팀으로 나누어 한일 양국의 관광·문화 등의 상품을 비즈니스 기획하여 사업발표회를 가졌다. 그 밖에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시장조사·퀴즈형식의 도전골든벨·친구에게 한마디·JK파티·한국 전통음악 체험·한국 문화 체험 등의 교류 활동을 통해 젊은 세대 간의 끈끈한 인연과 우정을 쌓아워 나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비즈니스 기획 발표에서는 패션·의류, 음식서비스, 식료품, 유통·서비스판매, 관광·레저, 정보제공



서비스, 환경, 복지·의료, 교육 등 8가지 카테고리의 사업 아이템에 대해 비즈니스 기획이 이루어졌으며, 이벤트 티셔츠<인사동, 명동>, 모치(떡)샌드위치<종로3가, 명동>, 일본인에게 한국의 화장품 판매<명동>, 직접 만드는 여행계획<신촌, 이화여자대학>, 엔터테인먼트의 한일교류<명동, 신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체험장<인사동, 남산한옥촌, 청계천>, VIP를 대상으로 한 노인문화센터<대흥(노인복지센터), 인사동>, 교육게임<명동, 인사동, 종로>에 대한 사업제안이 있었다. 이번 10회 캠프에서는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을 테마로 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체험장 사업'을 팀 전원이 참가하여 가장 잘 표현한 6팀(Eco Edu)이 최우수상을 차지하였다. 다른 팀들도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내어 발표하였으며, 심사위원 특별상도 1개팀으로 좁히지 못하고 'VIP 대상의 노인문화센터사업' 및 '이벤트 티셔츠 판매사업'을 기획한 2개 팀이 수상하였다.

2월의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첫 대면의 딱딱함도 잊어버

린 채 서로가 금방 친구가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된 한일 우정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 캠프를 후원해 주신 외교교통상부와 일본의 국토교통성, 주한일본대사관 등 한일 양국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협찬·지원해 주신 모든 기관·회사 관계자 분들께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린다.



다음 제11회 캠프는 여름방학기간을 활용하여 8월 3일(일)~7일(목)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으며, 회원사 기업에서도 많은 참여를 통해 미래 지향의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제9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 안내

- 한일 기업 상담회 기업모집 -

우리나라의 동해안 4개 자치단체(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와 일본 호쿠리쿠(北陸 : 도야마(富山)현, 이시카와(石川)현, 후쿠이(福井)현)지역과의 무역·투자·기술협력 확대 등 지역간 경제발전과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 관계자 1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양국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9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가 오는 5월 21일(수)~25일(일) 일본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시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번 제9회 회의와 병행하여 5. 22(목)~5. 23(금) 이시카와현 산업전시관에서 개최되는 e-messe金澤(호쿠리쿠 최대 디지털 정보통신 종합전시회), MEX金澤(금속공작·가공기계, 전기전자 관련기기 전시회) 전시회 출품과 함께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한일기업 상담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본 호쿠리쿠지역(富山縣, 福井縣, 石川縣)과의 무역·투자·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이번 한일 기업 상담회에서는 양국 기업인간 관심사항(수출입, 기술협력, 업무제휴, 투자협력 등)에 대한 사전 매칭(상담)작업을 통해 실질적인 상담성과 거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각각 상담 관심기업을 모집 중에 있사오니,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관심 있는 회원 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홍소영 사원 Tel : 02-3014-9888 / E-mail : syhong@kjc.or.kr)

제15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 안내

일본 큐슈(九州 7縣 2政令市 : 福岡·佐賀·長崎·熊本·大分·宮崎·鹿兒島縣, 福岡·北九州市)지역과의 무역·투자·기술협력 확대 등 지역 간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 관계자 8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양국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15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가 오는 6월 25일(수)~29일(일) 일본 키타큐슈시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번 제15회 회의와 병행하여 6. 26(목)~6. 28(토) 키타큐슈시 서일본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산업기술페어 전시회 출품(일반기계가공부품, 금형)과 함께 IT·인재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IT·인재 테마별 분과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본 큐슈지역과의 IT·인재 분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이번 테마별 분과회에서는 양국의 진솔한 의견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전시회 출품과 IT·인재 테마별 분과회에 관심 있는 회원 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홍소영 사원 Tel : 02-3014-9888 / E-mail : syhong@kjc.or.kr)

■ 일본은 지금...

엔고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표면화된 2007년 7월 이후, 엔고달러약세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2007년 11월에 1달러당 110엔을 넘어서게 되어 수출기업의 업적 악화로 인해 일본 경제에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있었다.

실제 Macro Model (▶한 나라의 경제 구조를 거시적 경제학과 계량 경제학을 이용하여 계량 경제 모델로 나타낸 것으로 국민소득·투자·수출입 등의 집계적 변수 상호의 의존관계를 수량적으로 나타내, 경제정책의 효과를 추정하거나 경제 예측에 이용하는 것) 시뮬레이션의 분석에 의하면 2007년 7월 이후 엔고로 인해 2008년도의 실질 GDP가 0.6% 하락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의 엔고달러약세를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전에는 엔달러 시세가 일본 경기를 크게 좌우했지만 일본 무역구조의 변화와 신흥국가의 대두 등을 배경으로 엔달러 시세의 변동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로 다음 3가지를 거론할 수 있다.

첫 번째 수출 면에서 비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경제는 침체경향이 명확화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미국으로의 수출은 줄어 들지 않고 있다. 이것은 고유가를 배경으로 연비효율이 높은 일본자동차의 수요가 탄탄하여 자동차

수출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메이커가 환경대응 등의 고부가가치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다소 환율이 엔고로 인해 흔들려도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체질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수입 면에서 코스트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07년 여름 이후, 일본 수입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엔고 진행이 엔화기준으로 수입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일본경제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은 적을 것이다. 실제 원유 가격이 90달러로 상승한다는 전제로 예측하면 엔고 진행전의 1달러=120엔이 계속될 경우 산유국에 대해 연간 4.9조엔의 소득이전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1달러=110엔으로 엔고가 진행되면 그 규모는 3.5조엔으로 축소된다.

세 번째 종합적으로 본 엔의 가치는 결코 높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주요무역상대국과의 환율 및 물가상승률 격차를 고려하여 작성된 실질실효환율(▶교역국간의 물가변동을 반영한 실효환율로서 교역 상대국과의 상대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즉 물가변동에 따른 실질구매력의 변동을 실효환율에 반영하기 위해 명목환율을 교역상대국의 상대적인 물가지수로 나누면 실질실효환율이 얻어진다. 각국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장기적으로는 각국내의 상대적인

물가상승률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 착안, 현재의 명목환율 혹은 통화가치가 국제경쟁력을 감안할 경우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됐었다)은 1985년의 프라자합의 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역사적인 엔저권에 있다. 통화 면에서 본 일본경제의 대외경쟁력은 여전히 유리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2007년 7월의 엔고 달러약세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기업로서는 엔달러 시세의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수출선의 다변화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글로벌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료출처 : Monthly Review 2008. 1〉



일본 景氣, 지금부터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경기 추세가 이상하다. 고유가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등, 미국 경제가 침체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올해 일본 경제의 景氣는 어떻게 될 것인가? 新年을 맞아 景氣를 점치는 기사를 많이 발견하게 된다. 景氣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데 어떤 척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2008년의 景氣 전망은?

▶ 원래<景氣>란 무엇인가?

사전에 의하면 <경제 활동의 상황>이지만, 사용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마이크로(미시)의 경기도 있지만, 신문 기사에서는 국가와 지역 등의 경제의 상태, 즉 <매크로(거시)의 景氣>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 景氣를 숫자로 나타내는 척도는 무엇인가?

대표적이 국내총생산(GDP)의 움직임이다.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서 하나의 국가가 새롭게 창출한 가치(부가 가치)의 합계액이다. 內閣府는 분기마다 GDP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前期와 비교해서 GDP가 어느 정도 증감했는가가 <경제성장률>로 물가의 변동을 제외한 실질치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플러스(+)이면 경기는 上向이라고 하지만, 2분기(6개월)가 계속해서 마이너스(-)이면 景氣의 후퇴가 의심되어진다.

▶ 그 외 척도는?

景氣의 방향성을 보다 세밀하게 보는 것이 <景氣動向 指數>이다.

주가지수와 실업률 등 복수의 지표가 각각 3개월 전보다도 상향일까, 하향일까를 內閣府가 계산한다. 전체의 50%를 넘는 지표가 신장(상향)하면 경기는 상향이라고 간주 한다. 景氣의 행방에 민감한 기업의 감각도 중요하다. 일본의 은행이 3개월마다 약 1만개사에 앙케이트로 조사하는 <日銀短觀>(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이 대표적인 예이다. 작년 12월의 日銀短觀에서는 고유가 등으로 대기업의 景氣 狀況感이 나빠졌다.

▶ 무엇이든 숫자로 예측하는 것인가?

정부는 <월례경제보고>로 景氣 판단을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작년 12월은 <景氣는 일부 약세를 보였지만 회복하고 있다>라고 前期의 판단을 보류 했다.

▶ 현재 景氣는 <이어나기(いざなぎ)景氣>를 넘어 戦後 最長이 되었다고 하는데...

景氣는 시간에 따라 산과 골짜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景氣 循環>이라고 한다. 고도 성장기의 <이어나기景氣>는 불황의 밑바닥인 골짜기로부터 호황의 산을 향한 경기의 확대 국면이 1965년 12월부터 57개월간이나 이어져 戦後 가장 오래 지속된 景氣라고 했다. 금회는 2002년 2월에 시작한 확대 국면이 2006년 11월로 58개월째에 접어들어 戦後 최장을 경신했다. 이어나기景氣는 연평균으로 11%대의 성장이었는데 비해 현재의 국면은 겨우 2% 성장이다. 實感이 불충분한 景氣라고 해도 방법이 없다.

▶ 景氣확대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것은?

景氣의 산과 골짜기의 시기는 경제학자 등 전문가가 모여 있는 內閣府의 景氣動向指數 研究會가 나중에 판단한다. 판정이 결말 날 때까지 장기간 걸리기도 한다.

▶ 향후景氣 展望은?

2007년 말의 정부 경제전망에서는 2008년도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2.0%로 하였다. 민간조사기관의 예측 평균도 거의 마찬가지로 완만하지만 景氣는 확대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지만, 景氣 추세가 급속하게 변하였다.

▶ 景氣가 왜 그렇게 급속하게 변했는가?

일본내에서는 여름에 엄격한 건축기준법의 개정으로 주택착공 호수가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도 성장률 전망을 종래의 2.1%에서 1.3%로 큰 폭으로 하향 수정하였다. 이것이 일시적인 하락으로 그칠까 어떨까? 가솔린과 식료품의 인상이 소비에 끼치는 영향도 걱정이다.

세계 최대의 미국 경제도 전망하기 어렵게 되었다. 신용력이 낮은 개인용 주택융자(서브프라임론)의 회수불능 문제가 금융기관의 경영만이 아니고 미국 景氣 자체도 냉각시킬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높은 성장이 이어져 미국의 하락을 메울 수 있을지 어떨지도 주목할 점이다.

JE

<자료출처 : 일본경제신문 2008. 1>

중소기업의 수익 압박 가속

<景氣感 대폭 악화>

중소기업의 수익 환경이 한층 나빠지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수출 증가의 혜택을 받기 어렵고, 원유 등의 원재료 폭등으로 수익을 압박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자수와 임금이 감소, 2월의 景氣感은 대폭 악화했다. 경기회복을 계속해온 일본경제 전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재료의 하나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 金融公庫가 정리한 2월의 <중소기업 경기현황 조사>에 의하면, 이익액이 <증가>라고 답한 기업의 비율로부터 <감소>라고 답한 기업의 비율을 차감한 지수(DI)는 -8.4가 되었다. 전월에 비해 6.2%의 대폭 하락으로 2003년 1월 이후의 최저수준이다. 식료품과 화학, 운송 등의 90%가 고유가에 수익이 압박 당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商工組合中央會의 2월 조사에서는 중소기업의 採算狀況이 전월의 지수보다는 소폭

개선되었지만, 2003년 전반과 거의 같은 低水準으로 정체 상태이다. 개인소비가약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부터 소매업과 식음, 숙박 등의 재산도 흑독하다.

금회의 경기회복은 수출 주도의 측면이 강하다. 수출비율이 높은 대기업에 비해 내수의존형의 중소기업에는 파급이 신통치 않다. 信金中央金庫의 분석에서는 국가 전체의 수출이 10% 증가하면 대기업 제조업은 생산이 3.9% 증가하지만, 중소제조업에서는 2.3% 증가에 머문다.

중소기업의 수익 압박은 고용·소득 면에서도 나오고 있다. 總務省의 1월 노동력 조사에 의하면, 종업원이 29명 이하 기업의 고용자수는 1,639만명으로 전년 同월에 비해 13만명 감소했다. 전년 중반부터 마이너스로 <중소기업의 도산 증가 등의 영향이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닛세이기초연구회 시니어이코노미스트)고 한다.



미즈호종합연구소에 의하면 종업원이 5~29명의 사업소에서는 07년의 급여가 전년에 비해 1.5% 감소하여 마이너스 폭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30명 이상의 사업소에서는 3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인력 부족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임금은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원유가격 등의 상황 나름>이라고 한다.

日銀(일본 중앙은행)의 12월 기업단기 경제관측조사에서는 중소기업의 2007년도 경상이익 계획은 전년도 대비 2.3% 감소되어 6월 조사부터 3회 연속으로 하향수정이 되었다.

현재의 원유 국제가격이 1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상품 市況이 한층 상승하고 있다. 日銀에서는 <중소기업에 의한 임금의 還元이 이전보다 약하게 되어 소비자 심리에 다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福井 총재)고 보고 있다.

향후, 고용과 소비 등에서 경제에 대한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경기의 견인역이 되어 온 대기업의 수출에서도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여 2002년 초부터의 경기 회복은 중요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중이다. 

<자료출처 : 일본경제신문 2008. 3>

<2007년 세계 자동차 판매대수>

(단위 : 만대)

No	회 사 명	판매대수
1	미국GM	936
2	일본 토요타자동차	936
3	미국 포드	655
4	독일 포르쉐.폭스바겐	650
5	일본 닛산.프랑스 르노	616
6	한국 현대자동차	396
7	일본 혼다	376
8	프랑스 PSA	342
9	미국 크라이슬러	267
10	일본 스즈키	237

<2008년 세계 관광 경쟁력 랭킹>

No(07년)	국 가 명
1 (1)	스위스
2 (2)	오스트리아
3 (3)	독 일
4 (13)	호 주
5 (15)	스페인
6 (10)	영 국
7 (5)	미 국
8 (17)	스웨덴
9 (7)	캐나다
10 (12)	프랑스

■ 일본 23위 (07년 25위)

☼ 2007년도 히트 상품의 네 가지 공통 법칙 ☼

-- 법칙 1. 정서적 가치를 높인다 -----

「2007년도의 히트 상품은 기능보다 정서적 가치를 높인 것이 특히 눈에 띈다.」

상품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경영 컨설턴트 오오타 마사히로(太田 昌宏)씨는 이렇게 지적한다. 오오타씨가 정의하는 정서적 가치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기쁘다, 즐겁다」고 하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미야자키 산 망고>가 전에 비해 맛이나 형태면에서 과일로서의 기능은 변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폭발적으로 팔린 것은 「그 히가시코쿠바루 히데오(東國原 英夫) 미야자키현 지사가 선전하는 미야자키산」이라는 정서적 가치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품의 고급선물품」이라고 새롭게 연출함으로써 잘 팔린 <러스크 프랑스>, 여자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는 제품이라고 하여 불티나게 팔린 향수 <AXE①>와 <오토코카오루 껌②>, 「환상의 도넛」이라는 <크리스피 크림 도넛③> 등도 정서적 가치에 의한 히트라고 할 수 있다.

정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저명한 사람이 선전한다. 둘째, 생산수량이나 노출량을 압축한다. 셋째, 상품에 얹힌 「스토리」를 만들어, 가치를 고양시킨다. 중소기업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세 번째이다. 중소기업 경영자 중에는 「우리 상품을 이야기할 만한 스토리 같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겠지만, 「재료」, 「제조법」, 「상품의 역사」를 다시 조사해 보면 뭔가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나올 것이다.

기술 혁신이 일단락된 지금은 기능보다는 정서적 가치를 잘 뽑아내는 상품이 팔리는 시대. 제조법을 공개하는 것으로 히트한 구두 SCOTCH GRAIN ODESSA같이 중소기업에서도 「스토리」의 임팩트만으로 크게 히트할 수 있다.

-- 법칙 2. 기존 상품을 조합한다 -----

2007년은 「조합한 상품」이 주목을 받았던 한 해. 교육과 레저를 융합한 <KidZania 도쿄④>, 「프랑스 빵(바게트빵)+스낵」인 <프랑스빵 공방>, 「저금통+육성 게임」의 컨셉이 히트한 <人生銀行⑤>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조합한 상품으로 히트를 노릴 때의 포인트는 가능한 한 상반되는 개념의 것들을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것. 아이디어 회의의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조합은 임팩트가 약하고 대개는 히트 상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법칙 3. 타겟을 바꾼다 -----

지금까지는 없는 게임팬을 획득한 <Wii>, 대상 고객을 젊은 여성층으로 바꾼다는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발포정주 <스즈오또>, 전형적인 매니아 용 상품이었던 무선조종비행기를 아마추어용으로 바꾼 <Aero Soarer⑥> 등 타겟을 과감하게 바꾼 것도 2007년 히트 법칙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 요령은 한번 타겟을 바꾼다면 철저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본주를 개발하고자 하여도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그 디자인은 일본주답지 않아」라는 상식적인 의견이 회사 내의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와, 결국 아이디어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이다.

-- 법칙 4. 실패를 해소한다 -----

07년은 <오키나와 리조트 웨딩>이나 PILOT의 지우는 볼펜 <FRIXION BALL>, 카오우(花王)의 <프리티어 훈와리 거품칼라⑦>, 소수의 <스크래치⑧> 등 고객의 불만을 해소한 히트 상품이 주목을 받았다.

히트 상품을 만드는 데에 장애물이 되는 것은 “고객의 불만을 어떻게 발견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 상품을 불문하고 현대의 소비자 다수는 불편을 느껴도 『이런 건가』하고 납득하는 경향이 강해, 앙케이트 조사 정도로는 획기적인 신상품으로 이어지는 “실패”가 보이지 않는다. 종업원은 물론 경영자 자신도 자사의 상품 유저가 되어, 평소에 의식적으로 자신이 만들고 있는

상품의 결점을 찾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 법칙들을 살펴보면 현대의 히트상품개발에는 거액의 연구개발비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오오타씨는 “한 가지 특색의 히트”의 시대라고 표현한다.

특화시킨 아이디어로 중소기업에서도 자사상품을 히트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① AXE

07년 3월 발매후, 8월까지 650만개 출시. 뿌리면 여자를 끌어당기는 “소문의 향수”. 체취억제기능 등을 선전하는 경쟁상품에 대해 『이 향수를 뿌리면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다』라고 독자적인 선전을 전개. 장난 반으로 구매하는 남성이 증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



② 오토꼬카오루 껌

장미향 성분을 배합하여 씹으면 전신에서 장미향이 나는 껌. 구취 예방 뿐 아니라 전신을 좋은 향으로 덮겠다는 대담한 발상이 참신하다. 여성과 스칠 때, 좋은 향기를 풍기고 싶다는 멋쟁이 남성의 소망에 호소하여 히트



③ 크리스피 크림 도넛

06년 12월 오픈 이래, 1시간이나 서서 기다리는 인기. 제 1호점 앞에 연일 늘어서는 대행렬이 계속 보도되면서 붐을 형성했다. 입안에서 녹는 듯이 퍼지는 맛의 특징 이상으로 “좀처럼 구하기 힘든 환상의 도넛”이라는 이미지가 젊은 여성들의 구매의욕을 자극



④ KidZania 도쿄

일본 최초의 어린이 직업 체험시설로 2006년 오픈 이래 연간 80만명 동원. 관내에서 약 70종류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성장 희망과 학부모들의 교육열의를 양쪽 다 만족시킨 것이 성공요인.



⑤ 人生銀行

저금통+육성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저축. 저금통과 전자 Pet 같은 육성 게임을 결합. 돈을 계속 저금하면 화면 가운데의 캐릭터도 “우승조” 층으로 성장해 나가는 구조로서 저금을 시작해도 언제나 작심삼일로 끝난다는 주부 등에게 어필하였다.



⑥ Aero Soarer

기계치&아마추어용 무선 조종 비행기. 고액에다가 조종이 어려워 매니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미지가 강했던 무선 조종 비행기를 아마추어용으로 대담하게 설계를 변경. 한 대에 몇 천엔이라는 싼 가격도 한 몫



⑦ 프리티어 혼와리 거품칼라

얼룩지지 않는 모발염색제. 혼자 염색하더라도 꼭 얼룩이 저서 결국 미용실에 가게 되어 버린다. 이런 여성의 고민을 일거에 해결. 거품상태의 모발염색제를 비비듯이 도포하는 것만으로 혼자서 예쁘게 컬러링할 수 있다.



⑧ 스크래치

제대로 제거되는 각질제거기. 발뒤꿈치나 무릎의 각질을 케어하고 싶지만 각질 제거용 돌은 딱딱해서 아프고 잘 제거되지 않는다. 이런 여성의 불만에 착안하여 미국에서 수입. 가볍게 대는 것만으로 각질이 술술 잘 떨어지는 젊은 여성의 필수아이템





한일경제인회의 특집 일본 치바현의 이모저모

한일간 경제인 모임으로는 최대 규모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일 경제인회의』의 40회째 회의 개최지인 일본 치바현에 대해 소개합니다.

일본 치바현 개요

제40회 한일경제인회의가 개최되는 치바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치바현은 일본의 수도권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부의 간토 평야와 중남부의 보소 반도로 이루어져 있다. 겨울은 따뜻하며 여름은 시원한 해양성의 온난한 기후로 겨울에도 거의 서리가 내리지 않는다. 일본 하늘의 현관이라 불리는 나리타 국제공항과 대형 컨벤션센터 마쿠하리 멧세, 일본 최대의 테마파크인 도쿄 디즈니리조트와 쇼핑몰 라라포트 등 대형 시설이 갖추어져, 그 발전이 가장 눈부신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치바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 면적: 5,156.68km²(일본전국 제 28위지만 도쿄(東京)도와 카나가와(神奈川)현을 합친 것보다 넓다)

◆ 인구: 6,056,462명(전국에서 6번째로 많으며 평균 연령은 42.4세로 전국에서 6번째로 젊은 현[치바현청 홈페이지 - 2005년 10월 1일 현재, 국세(國勢)조사] *세대수: 2,325,232세대

◆ 역사: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 家康)가 에도(江戸)에 막부(幕府)를 열자 보소(房總)는 본거지로 중요시되어 막부(幕府)의 직접적인 지배 지역 혹은 신하들의 영지가 되었다. 에도(江戸) 시대에 무사들의 지배 지역을 한(藩)이라고 하는데, 1871년 하이한치켄(廢藩置縣-막부 시절의 한(藩)을 없애고 근대적 지방 행정기관인 현(縣)을 두는 것)에 의해 보소(房總)에는 다테야

마현(館山縣), 사쿠라현(佐倉縣) 등 24개 현이 생겨났다. 1873년 6월 15일, 기사라즈현(木更津縣)과 인바현(印縣)을 합쳐 치바현(千葉縣)이 탄생하였으며 1983년에 치바현 인구가 500만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여 다음해에 치바현이 탄생한 6월 15일을 현민(縣民)의 날로 제정하였다.

◆ 공업

치바현(千葉縣)의 공업 형태를 보면 2005년에 종업원 4명 이상 사업소의 제조품 출하액 등은 12조 1,127억엔으로 전국 제 7위를 차지하였으며, 또한 사업소 수는 6,679개, 종업원 수는 217,810명이다. 공업의 주요 업종은 석유·석탄, 화학, 철강이며 2005년 제조품 출하액 등 구성비는 석유·석탄 19.7%, 화학 19.6%, 철강 13.2%로, 이들 3업종이 52.5%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공업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쇼와 20년대(1945~1954년) 전반까지 치바현의 공업은 간장, 술, 미립 등 양조업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치바현 등이 공업 유치를 적극 진행한 결과 쇼와 25년(1950년) 11월에 치바시 앞바다 매립지에 가와사키제철 치바제철소 건설이 결정되고 그 이후 중화학 공업계열 기업의 진출이 연이어 결정되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우라야스시(浦安市)에서 훗쓰시(富津市)에 이르는 해안선 76km, 약 12,000ha의 매립지가 완성되었다. 공업용지 면적은 약 9,241ha 중 99.5%에 해당하는 약 9,192ha이 분양 완료되었다. 한편 내륙부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공업단지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첨단기술산업과 성장산업 도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현재 90개 단지 약 2,809ha
공업용지 중 약 2,436ha이 분양이 완료. 가공조
립형 산업을 비롯한 각종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
으며, 제조품 출하액 등 비율은 임해부 58.1%,
내륙부 41.9%이다. (자료:치바현의 상공업 공
업 통계조사 결과 등)

◆ 상업

치바현의 상업은 600만 현민의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큰 역할
을 맡고 있다. 2004년 상업 통계조사 결과보고
서에 따르면 2004년 6월 1일 현재 치바현의 소
매업 상점 수는 42,857개, 종업원 수는 332,204
명, 연간 판매액은 5조 4,531억엔이다. 지역별
로는 치바(千葉)시, 후나바시(船橋)시, 마쓰도
(松戸)시, 이치카와(市川)시, 가시와(柏)시 5개
시에서 전체 상점 수의 39.8%, 연간 판매액의
47.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 규모별
상점 수 비율을 볼 때 4명 이하 소규모 상점이
전체의 62.9%를 차지하고 있다.

◆ 농업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대지의 혜택을 받은 치바
현은 일본에서도 유수의 농업 지역이다. 2005년
의 농업 산출액은 4,161억엔으로 전국 제 4위이
며 파·무·배 등 전국 제 1위의 산출액을 자랑
하는 품목과 쌀·화훼·축산도 전국에서 상위권
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주요 소비지
역인 도쿄(東京)에 가까운 치바(千葉)/히가시카
쓰시카(東葛飾)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입지 조건
을 살린 시금치 등의 야채 재배가 활발하고, 가
이소(海), 가토리(香取), 인바(印) 지역에서는
양배추, 당근, 수박 등 야채 재배 이외에 쌀 생
산, 축산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산부(山武),
초우세이(長生) 지역에서는 쌀 생산 이외에 멜
론, 토마토 등 온실재배가, 기미쓰(君津) 지
역에서는 쌀 생산, 야채 재배, 축산이 균형 있
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스미(夷隅) 지역에서는
수도를 중심으로 중산간지역의 특성을 살린
죽순 등의 생산이, 아와(安房) 지역에서는
치바현 내에서도 특히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자연의 혜

택을 받아 카네이션 등의 화훼나 딸기 생산이
활발하다.

◆ 수산업

치바현은 내만성(內灣性)과 외양성(外洋性)의
해역을 가지고 있고, 보소(房總)반도 근해에서
는 흑조(黒潮)와 친조(親潮)가 교차하는 등
변화무쌍한 풍요로운 어장을 보유하고 있다.
2005년에 현 내의 어업 총생산량은 216,088톤으로
일본전국 제 7위, 수산 가공품의 생산량은
277,318톤으로 일본전국 제 3위로서 일본에서도
유수한 수산현으로 꼽힌다.

◆ 경제·산업·기술

농업, 어업이라는 제 1차 산업에는 안정된 생산
량이 있고 제 2차 산업에서도 게이요 임해공업
지대가 있어 석유나 철광, 과학 등은 일본에서
도 유수의 실적을 자랑한다. 도쿄 주변 도시 인
구증가에 따라 소비시장도 증대되고, 백화점간
경쟁도 심화되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현에서는
'치바 신산업 삼각구상'을 책정했다. 이 구상은
인구, 산업을 임해부부터 내륙부로 넓히고 게이
요 임해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재형 산업을 고
부가가치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쿠
하리멧세를 중심으로 하는 마쿠하리 신도심구상
을 비롯해서 나리타공항 도시구상, 기사라즈,
기미쓰를 중심으로 조소신연구개발 도시구상의
3개의 계획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치바현의 오
랜 염원이라는 도쿄만 황단도로(아쿠아라인)을
통해 보소에서는 '보소리조트 지역 정비구상'도
책정되어 리조트 개발을 비롯해서 국제화 시대
를 향해 크게 비약하고 있다. ㉔

♣ 舞浜(まいはま)의 유래 ♣

경제인회의가 열리는 치바현 우라야스시의
'마이하마'. 우라야스 시의 행정구획인 19大
字(오오아자: 일본의 말단행정구역으로 비
교적 넓은 구역)의 하나이다. 대규모 레저
랜드인 도쿄 디즈니랜드를 건설하면서, 미
국 플로리다 주의 디즈니월드 근처에 있는
마이애미 비치에서 유래하여 명명되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 Tokyo Disney Resort

세계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사랑받고 있는 ‘꿈과 모험의 왕국’ 디즈니랜드. 미국 외 지역으로는 최초로 1983년, 일본 치바현 우라야스시(浦安市)에 개장하여 다채로운 퍼레이드와 라이브 쇼가 펼쳐지는 꿈과 마법의 왕국, 도쿄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는 이 디즈니랜드 옆에, 2001년 9월 도쿄 디즈니씨를 개장하면서 동양 최대의 놀이동산을 조성하였다. 두 테마파크(랜드&씨)를 중심으로 5개의 고급 오피셜 호텔을 갖추고, 약 120개의 다양한 점포가 모여있는익스피어리(イクスピアリ)와 일본 최대 규모의 디즈니샵 본 보야쥬(ボン・ヴェージュ), 리조트 내를순회하는



모노레일 디즈니 리조트 라인을 통해 쇼핑과 관광을 고루 즐길 수 있는 버라이어티 공간을 창출했다.

다양한 놀이시설과 날마다 이어지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인공 공들의 흥겨운 이벤트가 환상적

으로 펼쳐지는 도쿄 디즈니 리조트. 얼핏 도쿄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도쿄가 아닌 엄연한 치바현. 도쿄에서는 JR열차로 15분 거리이다.

도쿄 디즈니랜드 | Tokyo Disneyland



신데렐라 성을 중심으로 한 7개의

테마랜드로 구성되어, 디즈니 영화의 세계를 멋지게 재현하고 있다. 디즈니랜드의 유명한 퍼레이드는 디즈니를 대표하는 미키마우스를 비롯해 인기 캐릭터들이 총출연하여 구경하는 이들을 즐겁게 하고, 야간에 하는 도쿄 디즈니랜

드 일렉트릭 퍼레이드 드림 라이트는 전구로 표현한 디즈니만의 개성이 가득한 환상적인 빛의 세계를 연출한다.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디즈니의 모험과 낭만, 그리고 환상적인 세계를 만끽할 수 있다.

도쿄 디즈니씨 | Tokyo DisneySea



바다와 관련된 전설과 미래+현실+판타지를 컨셉으로 하여 세계에서 유일한 새로운 유형의 테마 파크

를 만들어냈다. 디즈니씨의 중심부에 솟아올라 있는 프로메테우스 화산이 때때로 대분화를 연출하는 등 박력 넘치는 파크에는 상상력이 가득한 7개 분위기의 테마포트가 있다. 정문 쪽에서 보이는 넓은 메디테라니언 하버를 무대로 펼쳐지는 화려한 수상 엔터테인먼트 쇼는 주·야간 모두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아름다운 동화 속세계를 묘사한 기존의 디즈니랜드와 달리 판타지의 이미지를 추가해서 고전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아닌 모두에게 친숙한 현대판 디즈니 애니메이션인 ‘인어공주’나 ‘알라딘’ 등의 세계를 직접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꾸며 놓았다.

회원동정 & 단신

■ 1월 8일 재경전북도민회 신년 하례식에서 김상하(金相廈) 명예회장(삼양그룹 회장)이 제4회 '자랑스런 전북인상'을 수상하였다. 김상하 회장은 전북 발전에 공헌해온 점을 인정받아 공공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2월 4일 최고경영자 전문잡지 '월간 CEO'가 100대 기업 CEO 1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종용(尹鐘龍) 부회장(삼성전자 부회장)이 17년 10개월 동안 CEO 자리를 지켜 영예의 '최장수 CEO' 자리를 차지했다. 윤 부회장은 1990년 3월 당시 삼성전자의 핵심부문이었던 가전부문 CEO에 취임했다. 이후 1992년 삼성전기 사장, 2000년 1월 삼성전자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현재까지 맹활약을 거듭하고 있다.



■ 세토 유조(瀬戸 雄三) 일한경제협회 명예회장(아사히맥주 상담역)이 전북 우석대에서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2월 22일 우석대 문화관 아트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김상하(金相廈) 명예회장(삼양그룹 회장), 허남정(許南整) 전무이사 등 국내외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난 1953년 아사히 맥주에 입사한 세토 회장은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 회장에 오른 입지전적의 인물로 현재 아사히 맥주 상담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토 회장은 일한경제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양국간 선린우호 및 교류증진에 앞장서 왔다.



우석대는 "2006년 7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일본 기업인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받는 등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위 수여식에 이어 세토 명예회장의 자서전 '역경은 두렵지 않다' 한국어판 출판기념회를 한일 양국의 주요 경제인과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학 본관 22층 국제회의실에서 가졌다.

■ 한국무역협회는 2월 23일 무역현장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초대 위원장에 서민석(徐敏錫) 부회장(동일방직 회장)을 선임했다. 서 부회장은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무역이 1조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무역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2월 24일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과 만찬을 함께 했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만찬회에는



김종필 전 총리와 박태준(朴泰俊) 명예회장(포스코 명예회장), 조석래(趙錫來) 회장(전경련·효성 회장) 등이 참석해 경제 분야를 비롯해 한일 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 한중우호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삼구(朴三求) 부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월 25일 신라호텔에서 탕자쉬엔 중국 국무위원을 만나조찬을 함께 하며 양국간 교류 활성화와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한편, 박 부회장은 3월 7일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회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13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제12대 회장 임기가 끝나는 작년 12월 회사 일이 바빠 더 이상 협회를 이끌기 어렵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후임 회장을 뽑지 못하고 있었다.

■ 신한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라응찬(羅應燦) 부회장(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은 2월 28일 서울 태평로 본점 대강당에서 총 294명의 장학생들에게 2008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라 부회장은 "1982년 지점 3개, 임직원 200여명으로 출발한 신한금융그룹이 역경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했듯 신한 장학생들도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으로 각자의 꿈을 실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최근 이구택(李龜澤) 부회장(포스코 회장)이 미국의 금융 전문 잡지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가 선정한 아시아 최고 CEO에 선정됐다. 뉴욕에 본사를 둔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아시아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몽구 회장 등을 포함한 '아시아 최고 CEO' 명단을 발표했다. 금속 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이 부회장은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원가 절감을 통해 포스코를 매분기 1조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내는 세계 최고 철강회사로 키워 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포스코는 오는 4월 1일로 창사 40주년을 맞는다.

■ 조양호(趙亮鎬) 부회장(대한항공 회장)은 3월 3일 대한항공 창사 39주년 기념식에 참석 글로벌 항공사로 자리매김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조 부회장은 기념사에서 "외부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탁월한 역량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여 경쟁사와는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큰 만족과 감동을 느끼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손경식(孫京植) 고문(대한상공회의소·CJ제일제당 회장)은 3월 5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모하마드 레자 바흐티아리 주한 이란 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이란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하여 협의했다. 이 날 바흐티아리 대사는 "최근 한국기업들이 이란에 진출해 플랜트 사업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 최용권(崔用權) 부회장(삼환기업 회장, 우성문화재단 이사장)은 3월 4일 종로구 운니동 재단사무실에서 소년소녀가장 184명의 중·고·대학생에게 모두 2억17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우성문화재단은 삼환기업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인재양성과 연구 및 문화활동 지원 목적으로 지난 1996년 설립됐다.



■ 김윤(金鈞) 부회장(삼양사 회장)은 3월 7일 삼양사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선임되었다. 1985년 삼양사에 입사한 김 부회장은 1996년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으며, 2004년부터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월 13일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개최,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등 최근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기업들도 올해 투자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진 한승수 총리 초청 만찬회에서 조석래(趙錫來) 회장(전경련·효성 회장)은 "기업들도 잘하는 분야 총리가 된 점에 든든하고 반갑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금번 모임에는 김승연(金昇淵) 부회장(한화 회장), 김윤(金鈞) 부회장(삼양사 회장), 박삼구(朴三求)

부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신동빈(辛東彬) 부회장(롯데그룹 부회장), 이구택(李龜澤) 부회장(포스코 회장), 조양호(趙亮鎬) 부회장(대한항공 회장), 최용권(崔用權) 부회장(삼환기업 회장) 등 우리협회 회장단도 대거 참석하였다.

■ 한중경영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문규영(文奎榮) 상임이사(아주산업 회장)은 3월 19일 서울 소피텔앰버서더호텔에서 주한 중국대사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재한 중국 유학생 5인에게 2008년도 제2기 장학금을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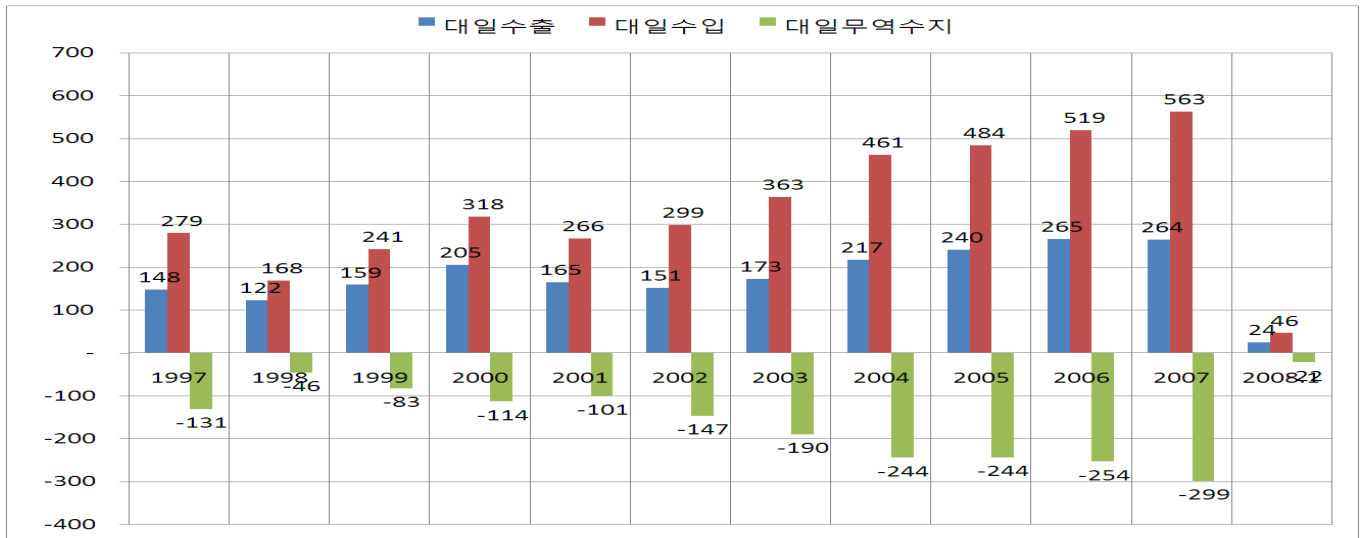


■ 작년 12월 헤럴드 경제가 선정한 '2007년을 빛낸 자랑스런 경영인'으로 허남정(許南正) 전무이사가 선정되었다. 허 전무이사는 25년 경력의 일본 경제·사회 전문가로 양국 산업협력의 기반을 탄탄히 하는데 앞장서왔다. 그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이 순수 가치로 1억2,000만 소비시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FTA 등 경제통합의 열기가 뜨거운 이 시점에서 양국이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거둬야 하며 서로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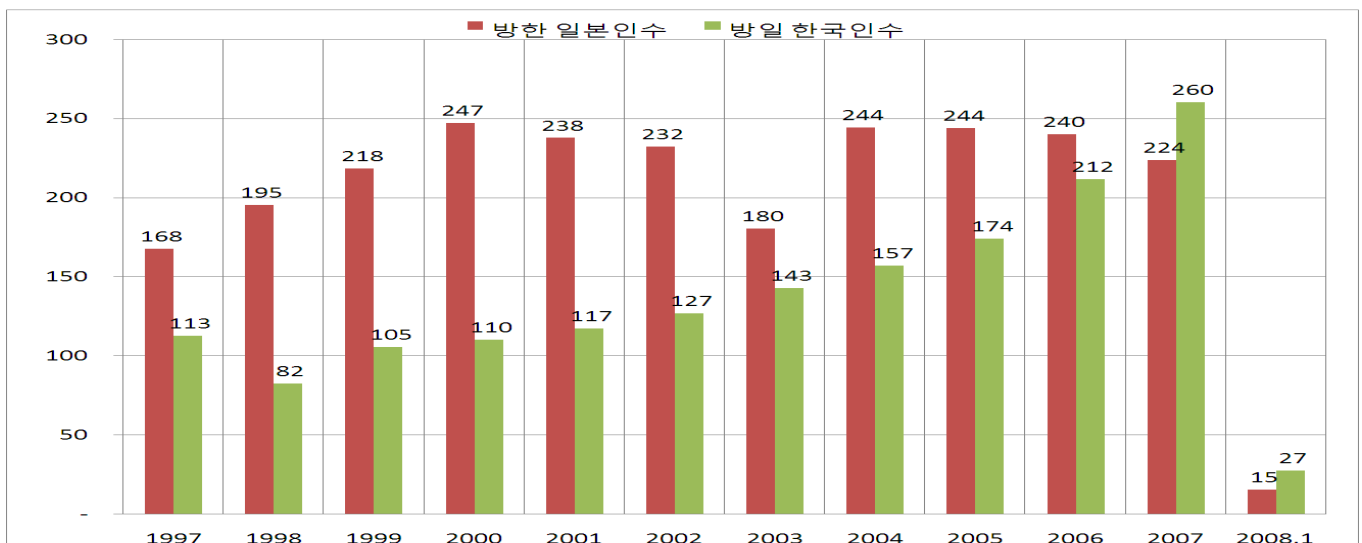
■ 한일경제협회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임직원은 1월 19일 태안반도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한편, 산악동호회에서는 2월 23일 JETRO 서울센터·SJC기업인들과 함께 관악산 등반으로 우호를 다졌으며, 마라톤동호회에서는 3월 16일 동아국제마라톤 풀코스에서 3명이 도전하여 모두 완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일 교역 현황 (단위 : 억불)



구분	총수출 (A)	총수입 (B)	총교역액 (C=A+B)	대일수출 (D)	대일수입 (E)	총대일교역 (F=D+E)	대일수출비중 (G=D/A)	대일수입비중 (H=E/B)	대일무역수지 (I=D-E)
1997	1,362	1,446	2,808	148	279	427	10.8%	19.3%	-131
1998	1,323	933	2,256	122	168	291	9.2%	18.1%	-46
1999	1,437	1,198	2,637	159	241	400	11.0%	20.2%	-83
2000	1,723	1,605	3,327	205	318	523	11.9%	19.8%	-114
2001	1,504	1,411	2,915	165	266	431	11.0%	18.9%	-101
2002	1,625	1,521	3,146	151	299	450	9.3%	19.6%	-147
2003	1,938	1,788	3,726	173	363	536	8.9%	20.3%	-190
2004	2,538	2,245	4,783	217	461	678	8.5%	20.6%	-244
2005	2,844	2,612	5,456	240	484	724	8.4%	18.5%	-244
2006	3,255	3,094	6,348	265	519	785	8.2%	16.8%	-254
2007	3,715	3,568	7,283	264	563	826	7.1%	15.8%	-299
2008. 1월	324	361	685	24	46	70	7.4%	12.7%	-22

한일 인적교류 현황 (단위 : 만명)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
방한 일본인수	167.6	195.4	218.4	247.2	237.7	232.1	180.3	244.3	244.0	233.9	223.6	15.3
방일 한국인수	112.7	82.2	105.4	110.1	117.0	126.6	142.7	156.9	173.9	211.7	260.1	27.2
계	280.3	277.6	323.8	357.3	354.7	358.7	323.0	401.2	417.9	445.6	483.7	42.5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진흥기구

👁 2008년도 한일경제협력 주요사업 Calendar 👁

월	일 자	행 사 내 용	지 역
1	2(수)~8(화)	지역특화시장개척단 파견	일본 오키나와
2	10(일)~14(목)	제10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한국 일산
	15(금)	한일경제협회 회장단회의(이사회)	한국 서울
	18(월)~22(금)	생산관리연수(10명)	일본 나고야
	18(월)~21(목)	일본기술자 초청 기술고문 매칭 상담회	일본 동경, 오사카
	26(화)	한일경제협회 제27회 정기총회	한국 서울
	28(목)	지식산업기술연수평가 간담회	한국 서울
	4(화)	한일재단 제1차 이사회	한국 서울
3	17(월)~21(금)	일본기술자 초청 기술고문 매칭 상담회	일본 동경, 오사카
4	12(토)	주한일본대사 초청 친선교류활동	한국 서울
5	11(일)~18(일)	전문교육연수(20명)	일본 동경
	15(목)~17(토)	제40회 한일경제인회의	일본 치바
	16(금)	양국재단 연락협의회	일본 치바
	21(수)~25(일)	제9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일본 카나자와
	26(월)~28(수)	한일중소기업상담회	일본 동경
	5월~8월	단기 기술지도(5개사)	한국
	5월~8월	단기 기술지도(5개사)	한국
6	25(수)~29(일)	제15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일본 기타큐슈
	25(수)~29(일)	아시아산업기술페어 2008	일본 기타큐슈
		주한일본대사 주최 간담회	한국 서울
		광학기술협력 연수(4일)	일본 큐슈
7	9(수)~11(금)	히메지 역구매상담회	일본 히메지
	22(화)~11/7(금)	기업현장연수(20명)	일본
		한일경제협회 제1차 회원사 간담회	한국 서울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전문위원회	한국 서울
		중소기업벤처프라자	일본 도쿄
		중소기업벤처프라자	일본 도쿄
8	3(일)~7(목)	제11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일본 도쿄
9		주한일본대사 초청 친선교류활동	한국 서울
	9월~11월	신진기술자 연수	일본 요코하마, 카와사키
10	1(수)~2(목)	한일산업기술페어(한일기업인상/세미나/상담회)	한국 서울
	28(화)~30(목)	도야마 역구매상담회	일본 도야마
	20(월)~25(토)	제8회 한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한국 인천
		금형부품협력 포럼	일본 도쿄
11		제1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국 서울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	한국 서울
		기업현장연수 수료식&보고회	일본 도쿄
		맞춤형아웃소싱미션단 파견	일본
12		한일·일한 양국경제협회 정례업무협의	한국 서울
		한일재단 제2차 이사회	한국 서울
		기술고문매칭 성과보고회	한국 서울